

무등산 국립공원 면적 조정 두고 ‘시끌’

화순 “확대 지정 변경안 철회돼야”

“지역면적 광주 줄고 전남 늘어” 지자체, 군민들 철회 강력 요구 지역경제 악영향...철회 서명도

무등산국립공원 면적을 확대·조정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화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연 공청회에서 화순군과 군민들은 변경 계획안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그 이유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지역별 면적이 광주는 감소하고 전남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 1년여 동안 공원계획 변경을 진행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담양·화순 지역의 편입 검토 대상지는 1.322㎢이고 해제 면적은 0.543㎢로 0.779㎢가 늘었다.

화순 지역은 0.121㎢ 해제되고 1.113㎢가 편입돼, 0.992㎢ 증가했다. 전체 증가면적 1.002㎢ 중 99%에 해당하는 0.992㎢가 화순 지역이다.

편입 대상지는 동구리 만연산(오감연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공청회.

결길)과 수만리 일대 국·공유림 등이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화순군과 협의도 없이 타당성 평가 결과만을 반영해 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공원 지정 확대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화순 군민 최모씨는 “화순에는 임업인이 320명으로 전국 시·군 단위에서 가장 많다. 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임업 활동이 위축돼 임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산림 사업 위축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반대했다.

화순 군민 이모씨도 “편입 지역이 국·공유림이지만, 화순에 있는 만큼 화

순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관계부처만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화순군의 의견이 먼저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화순군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반대하고 변경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는 화순 군민 3200의 서명서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동부사무소에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결과만을 반영한 확대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산림청,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확대 지정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영양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선정

영양군은 경상북도가 공모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021년 ‘잡곡(토종곡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양군은 군특·도비 5억6000만원, 군비 4억4000만원 총 10억원을 투입해 일일면 가곡리 영양고추산업특구 내에 잡곡(토종곡물)을 규격화되고 위생적으로 가공판매 할 수 있도록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다.

영양군은 이 사업으로 지역 내 영세농, 고령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

배로 생산과 가공·유통 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잡곡(토종곡물) 가공시설 운영을 농산물 가공·유통 전문조직인 영양고추유통공사에 위탁해 농산물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단순재배에서 2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및 제품 개발로 영양군 농산물의 부가가치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도, 경주보문단지서 ‘花랑플리마켓’

경북도가 6~8일 사흘 동안 경주 보문관광단지 호반광장에서 ‘화(花)랑 플리마켓’을 연다.

경주보문관광단지는 1979년 유네스코 아시아 3대 유적으로 지정된 경주보문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종합관광휴양지로, 이곳에서 열리는 이번 ‘화(花)랑 플리마켓’은 신라 화랑의 젊음과 열정을 ‘꽃’으로 재해석해 2030세대를 겨냥한 행사다. 초대권 없이 누구나 무료

로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 때 꽃무늬 포인트를 가진 방문객에게는 선착순으로 꽃을 나눠주는 ‘화(花)랑 함께 오기’를 시작으로 ‘2021 3대문화권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가 이어진다.

3일 동안 경주 보문단지에는 버스킹 공연(가수 : 심상명, 장나교 등)과 비눗방울 공연이 진행되고 화단에는 행사 주제인 꽃을 컨셉으로 한 감성 포토존도 설치된다.

/인동(경북)=문봉현 기자

포항 남·북 잇는 명품 해상교량 길 열린다

동빈대교 기공... 전망대 등도 설치 662억원 투입, 2025년 완공 목표

포항시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지방도20호선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동빈대교가 건설돼 포항도심지 극심한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5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항구동을 잇는 해상교량(가칭 동빈대교) 건설사업인 ‘호자~상원간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지역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호자~상원간도로 건설공사(가칭 동빈대교)’는 제3차 국도·국지도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포항-영덕) 구간 중 단절구간인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항구동 구간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662억원을 투입해 연장 L=1.36km 구간에 평면교차로 2개소, 교량(사장교) L=395m, 접속도로 965m 등을 설치하는 공사다.

국가지원지방도20호선은 포항시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이나 단절구간으로 인해 포항철강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도심지를 통과하게 돼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휴가철 및 각종 축제 등 행사 시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교통정체로 인

한 불편을 호소해 지역상권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포항시민들의 조기 사업 추진 요구가 이어져왔다.

동빈대교(가칭)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되며, 동해바다의 일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주탑 내 설치하고 야간에는 사계절 경관조명 설치하는 등 볼거리가 있는 명품 해상교량으로 건설된다. 더불어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운하축제 등 포항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빈대교는 해상교량으로 해양국제도시 포항시의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교량으로 건설해 영일만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한전KDN 정재훈 전력융합사업본부장(왼쪽부터 4번째).

한전KDN-전북도, 수소경제 조성 박차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 맞손

한전KDN이 한국판 뉴딜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에 적극 나선다.

한전KDN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의 추진조직 구성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내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ICT 분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포함해 11개 관련기관이 함께하는 협약을 통해 한전KDN은 수소 생태계 전 분야에 ICT 기술을 적용한 인프라 원격감시시스템,

양방향 보안 통신망 설계와 구축, 수소 도시 내 빅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수소-공급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 등으로 수소의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고려한 에너지 통합플랫폼 확보와 관련 사업의 인력양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전KDN은 이번 협약으로 ‘한전KDN형 뉴딜 - 신재생 및 신산업 투자확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국내 수소 에너지의 안전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전KDN 정재훈 전력융합본부장은 “한전KDN형 뉴딜 사업의 실천과 중장기적인 에너지 신사업 전략 목표 달성과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시, 건설 ‘지역업체-대기업’ 상생데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부산시는 6일 오후 시청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한 ‘Safety Up-Date, 만남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상생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건설업체와 그 업체가 선호하는 건설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규제정책 등으로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업체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우 지

난 2018년부터 3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기계설비)건설업체 Scale up 지원사업’에 참여한 51개사로 한정됐다. 건설 대기업은 총 17개사로, 현재 부산시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중앙 1군 건설 대기업 영남지회 소속 회원사 11개사와 지역건설업체 전문결과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6개사다.

행사는 1부, 2부로 나뉘어 1부는 건설 대기업과 부산시의 도시미래 비전·건설정책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된다. 2부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서는 지역업체와 대기업의 유기적 연대강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건설대기업 1대 1 밀착형 현장상담’이 진행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부산시 ‘동물 온택트문화축제’ 개최

부산시가 구포가족시장 폐업 1주년을 맞아 오는 14~15일 ‘2020 부산 동물사랑 온택트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

부의 ‘2020년 동물보호 문화축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가 아닌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택트 축제로 방향이 전환됐다.

/부산=허의원 기자